

한전KDN

송배전 전문 전시회 “미국 IEEE PES T&D 2018” 참가

–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전력 ICT 수출의 견인차 기대



한전KDN(사장 박성철)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되는 ‘IEEE PES T&D 2018’에 참가하였다.

‘IEEE PES T&D 전시회’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송배전 분야 국제 전력산업 전문 전시회로 격년으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으며, 두바이전기전, 하노버 메세 등과 함께 세계 3대 전기 전문 전시회로 평가받았다. 올해는 전 세계 50여 개국 800여 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, 지난 2016년 텍사스에서 열린

IEEE 2016에는 세계 855여 개 기업, 15,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바 있다.

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 미래 배전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현한 지능형 배전계통 운영시스템 5종(IEC 61850 기반 전력구 감시진단시스템, 차세대배전지능화시스템, 전력 IoT, 분산형전원 종합 운영시스템, 태양광발전관제시스템 등)을 비롯하여, MG-EMS(Micro Grid Energy Management System), 웹 GIS 기반 전력관리 서비스 플랫폼인 K-GIS 등 총 7개의 최신 에너지 ICT 제품·솔루션을 선보였다.

한전KDN은 한전 등 국내 에너지 기업의 수익성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,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송-변-배전 해외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으며, 국내 적용 기술을 해외 고객의 사업에도 적용하여 전력 ICT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. 또한 국내 관련 솔루션 협력사와 공동 진출도 모색하여, 동반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.